



태풍 '다나스' 지나간 제주... 곳곳에 생채기

1000mm 물폭탄에 침수 피해 속출

한라산 삼각봉 1086mm 등 산간·동부지역에 비 집중 피해 신고 총 93건... 주택·도로·농가·한동초 침수 22일부터 낮 기온 30℃ 웃돌아... 무더위 본격 시작

제5호 태풍 '다나스'가 제주에 물폭탄을 쏟아 붓고 빠져나가면서 곳곳에 생채기를 남겼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새벽 0시부터 20일 오후 4시까지 누적강수량은 한라산 삼각봉 1086mm, 윗세오름 1001mm, 성산 298.6mm, 우도 315mm, 송당 343mm, 제주 212mm, 산천단 356mm, 서귀포 189.1mm, 고산 91.9mm, 금악 235.5mm 등이다. 성산은 19일 하룻 동안 262.7mm가 내려 역대 7월 중 하루 강수량 2위를 기록했고, 제주시도 19일 하루 187.7mm가 내려 역대 3위 수준의 강수량을 보였다. 태풍특보는 20일 낮 12시30분을 기해 모두 해제됐지만 침수로 인해

피해가 속출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19일 오전 5시부터 20일 오전 7시까지 폭우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93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피해 접수 유형을 살펴보면 주택 침수 19건, 도로침수 11건, 하수역류 6건, 배수지원 6건, 도로파손 3건, 신호기 고장과 가로수 전도 등 기타 48건이다. 특히 이번 폭우로 서귀포시 성산을 난산리 갈굴 비닐하우스 932㎡와 안덕면 상창리 콩 재배농가 5319㎡가 침수되는 피해도 발생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19일 오후 9시 27분쯤 제주시 건입동 앞바다에서 낚시를 하던 낚시꾼이 고립됐지만 안전하게 대피 조치됐으며, 20일 오후 2시31분쯤에

는 서귀포시 강정동 서건도에서 2km 떨어진 갯바위에서 40대가 파도에 맞아 넘어져 무릎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지만 119에 의해 구조됐다. 아울러 제주시 구좌읍 한동초등학교 운동장이 침수돼 비상근무를 하던 교직원들이 양수기를 가동해 복구에 나섰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제주시교육지원청은 본예산 및 추경 예산에 7억2000만원을 반영해 내년 2월까지 한동초등학교에 빗물저수조 및 빗물이용저수조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당국은 누수 피해 등이 발생한 이도초등학교를 비롯해 도내 학교에 대한 피해 현황 및 원인을 파악해 시설을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태풍이 지나간 제주는 22일 아침 최저기온 25℃, 낮 최고기온 31℃를 기록하는 등 오는 31일까지 낮 최고기온 30℃ 이상을 웃도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예보됐다.

표성준·송은범기자



제5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지난 20일 제주공항 항공편 운항이 차질을 빚으면서 공항 대합실에 많은 승객이 몰려 혼잡을 이뤘다. 강희만기자

제주 양돈장 40% 악취관리지역 지정

56곳 추가... 113곳으로 확대
제주지역 양돈장 278개소 중 40%가량이 113개소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 고시'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악취관리지역' 44개소와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12개소 등 총 56개소를 확정,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56개소는 2018년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선정된 양돈 축산시설로, 악취허용기준 초과반도

(초과횟수/축정횟수)가 31% 이상인 62개소 양돈장 중 최근 1년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6개 농가를 제외한 것이다.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방지법 개정(6월13일 시행)에 따라 단독으로 설치 운영 중인 악취배출시설(양돈장 등)을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하는 악취배출시설이다. 조상훈기자 sycho@ihalla.com

“늘어나는 사건사고... 과학수사 신속하게”

국과수 제주출장소 개청
법의학 등 6개 분야 감청



지난 19일 제주시 아라동 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서 열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출장소 개청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제주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과학수사 진행 속도가 한층 빨라진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최영식)은 지난 19일 제주시 아라동 첨단과학기술단지에서 열린 국과수 제주출장소(제주시 첨단로 221)의 개청식을 열었다. 이번 제주출장소 개청은 제주지역의 급속한 인구유입과 국내외 관광객 증가로 각종 사건·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현장 감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뤄졌다. 제주지역 유전자 검사 건수는 2015년 1421건, 2016년 1150건, 2017년 1176건, 2018년 1827건으로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631건의 유전자 검사 의뢰가 있었다. 하지만 제주에서 의뢰된 감청은 국과수 본원이 위치한 강원도 원주에서 처리해야 했고, 현장 감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원이나 타 지

역 출장소 담당 감정인이 장시간 이동해 감청을 수행하는 등 신속한 감청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제주출장소는 앞으로 법의학 과 유전자, 법독성학, 법화학, 교통사고분석 등 6개 분야의 감청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우선 이달부터는 유전자와 법안전, 교통사고분석 등의 감청서비스가 제공되며, 법독성학 및 법화학 등의 분야는 오는 10월 이후 건물 내 실험실 리모델링과 장비 설치가 끝나는 대로 이뤄진다. 국과수는 이번 제주출장소 개청으로 보다 빠른 현장 중심의 감청처리를 통해 사건·사고의 신속한 원인규

명과 수사지원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영식 국과수 원장은 “제주출장소 개청으로 관할지역 대상 신속·정확한 감청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사기관에 대한 감청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확실한 감청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과수는 강원도 원주에 소재한 본원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권역별 거점에서 지방연구소를 운영했으며, 이번 제주출장소 개청으로 출장소가 6개로 늘었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재산문제로 다투다 형수 감금치사 50대 실행

재산 문제로 다투던 형수를 차량에 감금한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형수가 밖으로 뛰어내려 사망한 한 50대에 실행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감금치사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51)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씨는 2016년 10월 25일 상속재산 문제로 제주시 소재 형(52)의 집을 찾았다가 형수인 A(50)씨의 머리를 붙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 A씨가 비행기 탑승을 위해

자리를 떠 제주국제공항으로 향하자 태워주겠다고 속인 뒤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시켰다. 이후 고씨는 A씨에게 “형수의 아들 집으로 가자”고 말을 바꾼 뒤 한라산목원 사거리에서 노형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했다. 이에 A씨는 탈출을 결심, 차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도로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망이라는 결과를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매우 중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실행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송은범기자

산복소각장 노조 파업 보류 성수기 도민피해 우려 연기

민주노조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노조조합(이하 산복소각장 노조)은 제주도정과의 노경교섭 결렬로 인해 진행하기로 한 산복소각장 파업 등 쟁의행위를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제주도정은 지난 11일 제주도청에서 노경교섭을 진행했으나 서로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별다른 진전 없이 마무리됐다. 산복소각장 노조는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 투표를 진행, 92.7%의 가결률로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성수기 기간 관광객 등으로 인해 비수기 기간보다 발생하는 쓰레기양이 월등히 높다”며 “파업으로 인해 물려오는 쓰레기 처리를 못 하게 될 경우 도민들에게 해가 갈 것을 우려해 파업을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9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시설관리공단설립 조례 통과 과정을 지켜본 후 제주도와 교섭을 통해 파업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국가·자치경찰, 펜션 대상 범죄예방진단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범죄예방진단위원을 중심으로 합동점검을 펼친다. 22일부터 숙박업소 대상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도내 숙박업소는 올해 5월말 기준 총 5300여개소가 있으며, 이 가운데 휴양펜션업으로

등록된 98개소와 ‘펜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숙박업소 240여개소가 1차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합동점검팀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1년간 펜션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112신고 이력 등을 분석, 문제점을 파악한 뒤 펜션별로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송은범기자

2019년도 청주한씨제주도청년회 정기총회 안내

무더운 여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청주한씨제주도청년회는 지난 1998년 창립되었으나 2007년 명맥이 끊겨 오늘에 이르렀기에 제2의 도약과 청년회 재창립을 위한 2019년도 청주한씨 제주도청년회 정기총회를 개최 하고자 하오니 많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 연 제 : 2019년 7월 27일(토) 저녁 6시 30분
- ▶ 어디서 : 미래컨벤션 1층 노블레스 홀
- ※ 연락처 : 추진위원장 010-8481-8988
사무국장 010-2699-1134

청주한씨제주도청년회 재창립추진위원회

자연환경해설사와 함께하는 우수자연환경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안내

- ▷ 신청기간 : 2019년 7월 22 ~ 26일, 18시까지
- ▷ 교육기간 : 2019년 8월 ~ 2019년 10월 (월 2회 토요일) 총 6회
- ▷ 교육비 : 무료(단, 점심식사는 본인부담)
- ▷ 모집인원 : 20명(선착순)
- ▷ 소요시간 : 09시~15시
- ▷ 신청방법 - 아래 일정을 참고하여 해당일정에 참석 가능한 분에 한하여 참가신청서를 인터넷 다음카페 사단법인 제주자연환경해설사협회에서 다운 받아 이메일 seung6232@hanmail.net로 접수 하십시오
- ▷ 대상자발표 : 2019년 8월 1일(월), 개인별 문자통보

※ 신청문의 : 사단법인 제주자연환경해설사협회 사무국 010-3693-9643

우수 자연환경 아카데미 일정표				
월	일	요일	내 용	장 소
8	10	토	세계자연유산	거문고, 일출봉
-	17	토	천년의 숲	비자림, 돛모름
9	21	토	제주의 목축문화	감파장길, 따리버오름
-	28	토	오름과 지질 트레일	군산, 갯강
10	12	토	세계지질공원	용머리, 송악산
-	26	토	제주의 오름 이야기	다랑쉬오름, 용논이오름

사단법인 제주자연환경해설사협회

2018년 선정 인문도시 지원 사업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화목한 인문학!

인문도시지원사업 2차년도, 인문학의 길로 접어들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도시 사업단에서는 2018년도부터 2년에 인문도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도민들과 인문학적 가치를 나누는 인문학 강좌인 “화목한 인문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0개의 강좌가 2019년 8월 6일(화)부터 2019년 9월 10일(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운영됩니다. 문학과 예술, 동서양 고전, 건강 문제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인문학적 주제로 삶을 되짚고 함께 고민하는 장인 “화목한 인문학”으로 제주도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화목한 인문학” 강좌 안내
- 강좌 기간: 2019. 08. 06(화)~09. 10(화)
- 강좌 일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19:00~21:00(8월 15일 제외 총 10회)
- 강좌 장소: 제주 벤치마루 10층 대강당(제주시 중앙로 217)
- 신청 기간: 2019. 07. 22(월)~07. 31(수)
- 모집 인원: 100명(선착순)
- 수강료: 무료(차량 주차자 주차료 개인 부담)

- “화목한 인문학”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전자우편(humanity@jeju.ac.kr)으로 접수
- ※ 신청서는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누리집(humanism.jeju.ac.kr) 공지사항에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 수수료: 70% 이상 강좌 참석자에 한하여 수수료 없음

구분	일시	강 사	주제 (강좌 내용)
1	08. 06	정출현(부산대)	풍자와 해학으로 풀어낸 판소리의 현실미학
2	08. 08	이민주(한국해양연구원)	조선왕실의 복식 용의 그리고 병을 수놓다
3	08. 13	윤진영(한국해양연구원)	옛 그림 속 인문학
4	08. 20	강문중(제주대)	조선시대, 생계형 범죄들
5	08. 22	장유순(단국대)	조선시대, 설마 이런 직업들이 -조선에도 마라톤이 있었다-
6	08. 27	배병삼(영산대)	논어, 사람의 길을 열다
7	08. 29	정은주(한국해양연구원)	연행도, 조선 세계를 만나다
8	09. 03	제갈윤석(제주대)	비단, 통통한 것이 아니라 아픈 것임이다!
9	09. 05	장창원(제주대)	중국의 역사왜곡, 무엇이 문제인가?
10	09. 10	이동희(한신대)	그리스-로마신화, 서양문명의 코드를 읽다 - 한 일의 사기로 읽는 그리스-로마신화-

○ 문의처: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도시사업단 담당자 (이현정, 064-754-2333)